


공동체 소식



연중 제31주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10월 기도지향

- +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냉담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11월은 '위령의 달'이며, 11/2(월)은 '위령의 날'입니다.

- 위령의 날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이 평화의 안식을 얻도록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전통적으로 묘지를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전대사의 은총을 청합니다.

'위령의 날(11/2)' 미사

- 11/2(수) 오전 10:00
※ 화요일, 목요일 본당미사는 없습니다.

신심미사 안내

- 예수성심미사 : 11/04(금) 오전 10시, 미사 30분전 '십자가의 길'기도 시작.
- 성모신심미사 : 11/05(토) 오전 10시, 10시에 묵주기도와 함께하는 미사 시작.

맨하탄 공동체 미사

- 일시 : 11/12(토) 오전 11:30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11/19(토) 오전 11:30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00
- 장소: 본당 나자렛관.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436	220	172	227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정예진 한나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 주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차민서 임마누엘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영은 안젤라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킴라스티카
차주	정수한 베드로	강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애찬 봉사자

금주	정지현, 조지연, 정명숙
차주	김화년, 안현숙, 김진미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차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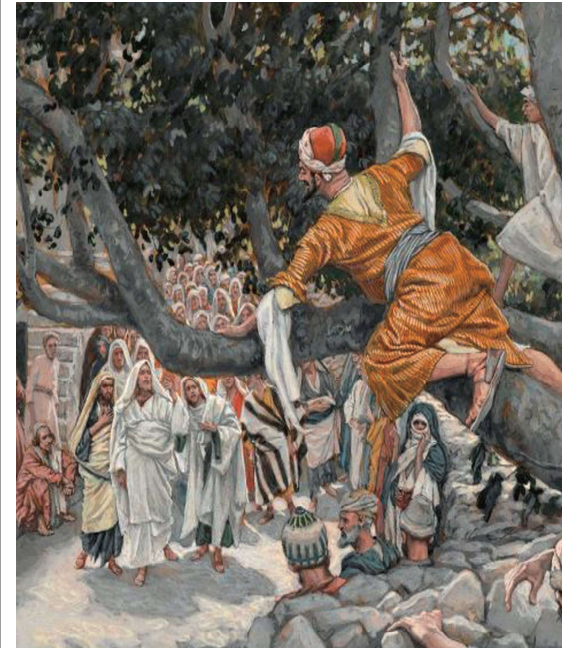
	영성체	헌금	교무금
10/23	74명	379불	1,100불
김진미, 김정원, 김호원, 안혜진, 김대중 (총 5세대)			
건축헌금	지난주 합계: 600불, 총합계: 6,000불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회장 임창주 베드로
M: 913.961.5166
ch01yim@hanmail.net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죄인 취급을 받던 세관장 자캐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가진 재산을 나눕니다. 지혜서 저자의 고백이 화답처럼 들립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 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탈선하는 자들을 조금씩 꾸짖으시고, 그들이 무엇으로 죄를 지었는지 상기시키며 훈계하시어,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십니다."

성화해설

돌무화과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는 자캐오 (제임스 티소, 1886-1894년, 수채, 뉴욕 브루클린 박물관, 미국)

세리 자캐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캐오를 부르십니다. "자캐오야 열려 내려오너라." (루카 19,5) 자캐오는 회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캐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가 비록 세리이고 죄인이지만, 주님께는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하느님께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임을 기억합시다.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서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11,22-12,2
<주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므로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십니다.>

화답송: 

-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 말씀입니다. 1,11-2,2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1-10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쉐 마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는 종종 힘겹거나 어려울 때 하느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우울함이 찾아올 때면 가끔 하느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를 모르겠다며 절망하기도 하고 하느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지혜서는 하느님께서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지혜 11,24).

지혜서에 따르면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없이 자비로우십니다. 하느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죄인마저 회개하여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시며, 그렇게 돌아오는 죄인의 죄를 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소중히 여기시는데, 만물 안에는 당신의 불멸의 영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며 죄를 지어 탈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다시금 당신에게 충실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어서 훈계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 다가오는 자캐오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자캐오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행여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횡령한 것이 있다면 네 곱절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관리들은 세리들이 더 많은 세금을 거

두어들여야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세리들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죄인들이나 창녀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했습니다. 자캐오는 이런 삶에서 되돌아와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런 자캐오를 보시고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진정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과 달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서 죄인 자캐오의 집에 들어가 묵는 것을 보고 투덜거립니다. 자캐오 같은 세리에게마저 하느님의 자비가 주어진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죄인들을 당연히 미워하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다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된 이들입니다. 곧,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도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인이나 원수마저도 우리처럼 하느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 선의로 모든 이를 위해 자비를 간청하며, 세상 모든 이들을 하느님 사랑 안에 불러 모으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 자비로워지며, 그분 자비의 도구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2테살 1,11-12).

- 영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이스라엘 왕국의 건설자, 사무엘 예언자

소년 사무엘은 사제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미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여 앞을 잘 볼수가 없었던 엘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무엘도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예” 하고 스승인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는데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주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알았고,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사무 3,1-14

여호수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여러 판관이 등장해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필리스티아인들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신앙도 큰 위기를 맞이하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성궤까지 빼앗겼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기 욕심에 빠져 뇌물을 받고는 판결을 그르치게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사무 8,1-9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츠파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 놓고서 연설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의 손에서 구원해주셨습니다. 그

런데도 오늘 여러분은, 온갖 재앙과 재난에서 여러분을 구해 주신 여러분의 하느님을 배척하면서, 임금을 세워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파와 씨족별로 주님 앞에 나와 서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야곱의 막내아들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었고 결국 누가 초대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사무 10,1-24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느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사무엘은 예언자 중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 중흥의 주역이었으며, 이스라엘 왕국의 건설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이런 역할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일은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이 우선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하느님 부르심이 없고, 부르심이 있어도 인간이 응답이 없다면 모든게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눈높이

누군가 한 명이 낮아지거나
누군가 한 명이 높아지거나

그래야 맞출 수 있는 것이 눈높이

그분이 이렇게 많이 낮추셨으니
굳이 자캐오 당신이 올라갈 필요가 없지요

그분이 이렇게도 많이 낮추셨으니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루카 19,5)